

2021 경기도 청년연구 공모 결과보고서

#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실태 연구

- A Study on the Labor Status of Youth in College

이지현

연구책임 | 이지현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청년연구공모사업 보고서는 청년들이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9 Fax : 070-8220-0200 E-mail : kimjm1785@ggwf.or.kr

## 요약

###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라는 작은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청년의 정의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각 지자체 별로도 다르다. 넓은 범위의 청년을 어떻게 규정짓고 선별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대학 재학 중인 청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학생 청년들 중 대다수가 학업과 노동을 병행 중이지만,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혹은 구제 정책은 미흡한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실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책을 제안하려 한다.

### □ 연구방법

다양한 학술 자료 및 서적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2차 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심층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적 및 자퇴생을 제외한 대학생이라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휴학생의 경우 휴학의 동기가 노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인터뷰 및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을 처음 시작한 시기, 노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현재 진행 중인 노동 등과 같이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과 노동으로 인한 힘든 점, 실소득, 관련 경험 등을 조사하여 개개인의 특징도 파악하였다.

## □ 노동 경험 분석

노동을 처음 시작한 연령대는 매우 다양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학생 때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제일 빠른 때였다. 또한, 이번 여름 방학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늦은 때였다. 그리고 다수의 인터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혹은 대학을 입학할 때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본격적인 시작은 이때 했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지만, 학생 시절에도 개인적인 사정 혹은 용돈 문제로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노동을 해본 적이 많다는 응답도 많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 성인이 된 만큼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용돈과 유희비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부모님 외의 주변 지인으로 인한 동기가 더 없었을 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노동계기에 주변 지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함께 조사하였다.

## □ 노동과 타 지표들의 관련성

### (1) 학업과 노동의 관련성

학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으로 인해 노동에 큰 영향을 주고, 노동으로 인해 학업에 큰 영향을 준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코로나19와 노동의 관련성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일수와 시간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혔다. 근로 일수와 시간은 급여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든 것이 가장 부담이 컸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근무지의 근로 일수 및 시간 변동으로 인해 주수입이 줄게 된 인터뷰이들이 많았다. 따라서 투잡과 같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 (3) 진로와 노동의 관련성

노동을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만 하지는 않는다. 간접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혹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노동을 하는 곳은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일을 배우면서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처럼 노동은 향후 진로와도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진로는 가야 할 길이지만, 노동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 인터뷰이가 말했다.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야 할 길은 앞으로의 내 방향을 고민하고, 생각한 후에 길게 보며 갈 길이라는 점에서 노동과 다른 것 같다. 반면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 그렇다면 노동 경험이 진로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한 응답 결과를 취합하고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 □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현실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현황부터 소득, 만족도까지 모두 알아보았다. 학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많은 인터뷰이들은 “노동 중인 대학생”을 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열악한 환경 속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열악한 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코로나19가 학업에 준 영향은 노동에 주는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고, 노동이 주는 영향은 또 학업에 주는 영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학업 수행은 진로와 직결되며, 노동 또한 진로와 관련성이 크다. 이처럼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모든 노동, 학업,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간 연쇄적인 성향을 높게 띄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해진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매우 많았다. 이는 관련 교육 및 정보의 부재뿐만 아니라 노동자 본인들조차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노동 환경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1. 노동 중인 대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 중인 대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명목적인 것만을 좇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노동자들을 들여다보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의 대상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 2. 노동 관련 교육 의무화

- 노동을 하는 당사자조차 노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및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이 각 개인에게 할당된 수당 및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사업자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기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 3. 산학협력 근무지 활성화

-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생 청년들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다. 또한, 일을 할 때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혹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근로장학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기관 혹은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 산학협력 기관 혹은 기업에 학교 학생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산학협력 기관 및 기업 채용인원 할당제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산업체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유망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고, 학교는 산학협력 기관에서 재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학생에게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 목차

## I | 서론 / 14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9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150
- 3. 연구 절차 ..... 151

## II | 노동 경험 분석 / 153

- 1. 노동 시작 연령 및 계기 ..... 153
- 2. 과거 노동 경험 ..... 154
- 3. 현재 노동 경험 ..... 156
- 4. 노동 소득 및 만족도 분석 ..... 158

## III | 노동과 타 지표들과 관련성 / 163

- 1. 학업과 노동의 관련성 ..... 163
- 2. 코로나19와 노동의 관련성 ..... 165
- 3. 진로와 노동의 관련성 ..... 167

## IV | 결론 / 171

- 1.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현실 ..... 171
- 2.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애로사항 ..... 173
- 3. 노동 환경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175

## | 참고문헌 / 177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와 닿았을까”라는 작은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청년의 정의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각 지자체별로도 다르다. 넓은 범위의 청년을 어떻게 규정짓고 선발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대학 재학 중인 청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현재 대학생이며, 노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학자금이라고 생각한다. 학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고, 노동을 통해 마련하기도 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 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경우가 다수이다. 하지만 노동을 통해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과 노동을 병행해야 한다. 연구자 본인도 학업과 노동을 병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병행함으로써 힘든 점들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대학생 청년들 중 대다수가 학업과 노동을 병행 중이지만,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혹은 구제 정책은 미흡한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실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책을 제안하려 한다.

노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학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청년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히 일을 한다는 “노동”의 의미를 넘어서, 청년들에게 “노동”이란 무슨 의미일지 연구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노동 유형 및 산업을 예측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노동을 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막연할 수 있다. 연구자가 정의하는 “노동”의 범주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연구를 통해 각 유형별 근로자 분포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다양한 학술 자료 및 서적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2차 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심층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적 및 자퇴생을 제외한 대학생이라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휴학생의 경우 휴학의 동기가 노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인터뷰 및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을 처음 시작한 시기, 노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현재 진행 중인 노동 등과 같이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과 노동으로 인한 힘든 점, 실소득, 관련 경험 등을 조사하여 개개인의 특징도 파악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노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였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진행 중인 것인지도 조사하였다. 또한, 노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어떤 분야가 더욱 큰 영향을 주는 쪽인지 분석하였다.

### 3. 연구 절차

첫째, 1차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산출이다. 기존 학술 자료 및 서적 등을 활용하여 연구자만의 2차 자료를 산출해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연구를 전체 대면 인터뷰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큰 것 같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화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 방식을 통한 질적연구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들어볼 수 있도록 비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양적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기로 계획하게 되었다.

둘째, 2차 자료 보완을 통한 서면 인터뷰 문항 작성이다. 서면 인터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결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전화 인터뷰로 진행될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인터뷰이를 구하기 위한 모집 포스터 및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뷰 인원을 확정 지었다.

셋째, 전체 인터뷰이 점검 및 설문 문항 확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인터뷰할 것인지 확실히 정하고, 상호 간 일정을 조율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에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며 설문 문항을 확정 지었다.

넷째, 연구 수행이다. 전화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먼저 시작하였고, 이후 비대면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노동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고, 서면 인터뷰는 실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비대면 설문조사는 구글 폼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은 주변 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 재학 중이고, 다양한 노동을 진행 중인 설문자들이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인터뷰 및 설문조사 내용 취합이다. 연구에 쓰일 실질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고, 설문조사도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연구와 거리가 먼 응답들은 배제하였다. 비대면 설문조사의 경우 구글 폼으로 응답을 받았다.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례나 설명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받았다.

여섯째, 연구 내용 종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이다. 인터뷰 및 설문조사 내용을 모두 취합한 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결과보고서를 통해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실태를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응답을 기반으로 자세히 소개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청년 지원정책이 필요할지 등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며 마치려고 한다.

## II 노동 경험 분석

### 1. 노동 시작 연령 및 계기

노동을 처음 시작한 연령대는 매우 다양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학생 때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제일 빠른 때였다. 또한, 이번 여름 방학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늦은 때였다. 그리고 다수의 인터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혹은 대학을 입학할 때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본격적인 시작은 이때 했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지만, 학생 시절에도 개인적인 사정 혹은 용돈 문제로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노동을 해본 적이 많다는 응답도 많았다.

노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매우 다양했다. 가장 큰 이유이자 많은 이유는 용돈 벌이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이 부족하거나 혹은 성인이 된 후 용돈을 받지 않게 되며 스스로 개인 용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양한 답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자 본인 또한 사회경험을 위해 노동을 많이 해보고 싶었다. 노동을 하는 공간 자체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얻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시절에는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 못하였고, 대학에 입학하며 본격적인 노동을 하기 시작했다.

용돈벌이와 사회 간접 체험을 위해 노동을 시작했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계기들이 있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사회에 빨리 나오게 되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작하였다, 창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시작하였다, 집에만 있기 심심하여 일이라도 하고 싶었다, 자취 비용을 마련해야 한도와 같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

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 성인이 된 만큼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용돈과 유희비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부모님 외의 주변 지인으로 인한 동기가 더 없었을 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노동계기에 주변 지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함께 조사하였다.

부모님 외의 주변 지인으로는 친척 혹은 친구의 영향이 제일 크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주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 인터뷰이도 있었으며, 친구가 직접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는 인터뷰이도 있었다. 또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인터뷰이에게 사업을 하시는 친척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며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처럼 노동을 시작하는 계기는 매우 다양하며, 그 계기는 크게 금전적인 문제, 사회 간접학습, 개인 욕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계기에 따른 노동 유형도 매우 다양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 2. 과거 노동 경험

노동을 시작한 연령과 계기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경험해 본 노동 경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 가지 노동을 지속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분도 계셨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해본 분도 계셨다. 이전에 해본 노동이 없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노동 이전에 한 가지만 해본 경우, 이전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경우로 나누어서 각 Case 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Case 1>

이전에 해본 노동이 없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이 처음인 경우)



- 올해 20살이 된 인터뷰이는 이전에 해본 노동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이 처음이라고 했다. 대학교에 들어오며 용돈이 많이 필요해져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생각보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너무 힘들었으며, 개인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한다.

#### <Case 2>

현재 하고 있는 노동 이전에 한 가지만 해본 경우

- 이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지만, 대학 공부와 병행하기 힘들어져서 관두게 되었다. 하지만 용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해서 쿠팡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Case 3>

이전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경우

##### (1)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 학업과 병행하기에는 고정근무로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로를 하지 않고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여건에 맞춘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주유소, 고깃집, 백화점, 마트, 쿠팡,마켓컬리 등과 같이 급할 때 인력을 모집하는 곳에서 많이 근로했다. 또한, 보조출연, 행사 관련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

##### (2) 장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 학교에서는 근로 장학생으로 근로 중이며, 이외 시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하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 같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함께 근무하는 근무자나 손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서 힘든 것 같다.

이처럼 노동 사례를 이전에 해본 노동이 없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이 처음인 경우), 현재 하고 있는 노동 이전에 한 가지만 해본 경우, 이전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경우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봤다. 각 경우에 따른 노동 동기도 다르며, 수입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학업이 있었다. 학업과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다 혹은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고정적인 시간에 노동하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3. 현재 노동 경험

그렇다면 이전에 해본 경험이 아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동 경험은 어떨까? 그 현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 <Case 1>

한 가지 노동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매일 6시부터 10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친구 덕분에 시작하게 되었고, 4개월째 하고 있는 중이다. 주말에는 평일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쓰는 중이며, 평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다.

#### <Case 2>

두 가지 이상의 노동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동네 맥도날드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노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근로 장학생만 오래 하고 싶지만, 1인당 할당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로 장학생만으로는 용돈으로 쓰기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 장학생 근무 시간과 피해서 맥도날드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Case 3>

고정적인 노동과 유동적인 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 고정적으로는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용돈이 부족할 때는 일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나가는 중이다. 쿠팡 혹은 마켓컬리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 지원해서 나간다. 야간에 하는 것이 수당을 더 많이 줘서 야간에 주로 나간다.

#### <Case 4>

비규칙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코로나19 전에는 노동 시간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후로는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현재는 인원을 많이 줄인 상태여서 규칙적으로 일하러 가지 않고,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출근한다. 보충 인력의 개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며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해당 자료에는 경험해 본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음식점 서빙이 28.2%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단지 돌리기 및 스티커 붙이기 (24.2%), 뷔페 및 웨딩홀 안내 혹은 서빙 (13.1%), 마지막으로 패스트푸드점 점원 (7.4%) 순으로 응답 결과가 취합됐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책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특성이 변해왔다고 한다. 여러 가지의 지표로 나누어서 변화된 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연령이다. 20대 및 50대 이상 연령이 증가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20, 50, 60대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30, 40대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대비 1.73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이다. 또한, 타 연령대에 비하여 50, 60대 이상 비율이 늘어난 것은 인구 고령화가 큰 원인인 것 같다고 한다.

둘째, 성별이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 비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2009년에 눈에 띄게 여성이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증가했다고 한다.

셋째, 혼인이다. 무배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무배우의 의미는 미혼, 이혼, 사별을 모두 포함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무배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며, 이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혼인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학력이다. 대졸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고졸 미만 학력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거의 50%에 달했지만,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40%에 불과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대졸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학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위 결과와 같이 연령, 성별, 혼인, 학력에 따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비율을 나눌 수 있다. 연구자 본인의 조사 결과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연구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에서도 대학생 청년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기 때문에 더욱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 4. 노동 소득 및 만족도 분석

노동으로 얻는 한 달 평균 소득과 현재 진행 중인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는 5명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김xx, 대학교 2학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1인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해서 이를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간에 따라 여러 개 진행하며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주로 백화점, 방송국, 기업 행사 등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현재 1년째 진행 중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며 고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자격증 시험 일정에 따라 개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시급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예전보다 한 달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용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노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제 모든 식비, 유흥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에이전시를 통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다 보니 함께 일하는 사람과 잘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본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학업과 병행하기 편해서 만족합니다.

<황xx, 대학교 1학년>

특성화고 출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 아르바이트, 음식점 홀서빙 아르바이트, 포장 및 배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봤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맞지 않을 때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잘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와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게 되면 능률도 떨어지고 일하러 가기 전부터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르바이트는 매우 만족 중입니다. 평소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나, 현재 하고 있는 치킨집에서는 6개월째 아르바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함께 일하는 친구와 사장님, 직원 분들 모두 성격도 좋으시고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납니다.

소득의 대부분은 식비와 쇼핑비로 사용합니다. 가게가 많이 바쁘기도 하고 오래 일하기도 해서 최저시급보다 약 15%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하루 5.5시간 정도로 적당하며, 평일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한 달 평균 아르바이트 급여는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박xx, 대학교 2학년>

저는 대학교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 가지 않으니 시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르바이트는 세탁소 배달 아르바이트와 국립극장 하우스 어셔입니다. 세탁소는 현재 1년 4개월째 하고 있으며, 국립극장 하우스 어셔는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르바이트 모두 고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소득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르바이트를 모두 합쳐서 4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식비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립극장 하우스 어셔 아르바이트는 교통비가 들기 때문에 한 달 급여가 30만 원 정도인데 5만 원 이상이 교통비로 나가는 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시작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월급이 적어서 실

질적인 독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일을 하기 때문에 미리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진상 손님을 만나면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데 스케줄 때문에 억지로 나가야 한다면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 유동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합니다.

<이xx, 대학교 2학년>

노동을 처음 시작한 때는 2020년 1월 첫째 주입니다. 이때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마친 겨울방학 때였으며, 이미 대학 합격증을 받은 상태여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이상 다니고 있던 수학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수학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고 자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또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래 다니던 학원이기도 했으며, 입시 준비를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논술 등 다양한 분야로 했었기 때문에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또한, 집에서 학원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였기 때문에 무료하게 집에 있지 않고 용돈벌이라도 하자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가 개강하고 수업 일정이 생기고 나니, 꾸준히 일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아울렛에 입점되어 있는 이유식 카페에서 이유식과 유아용 간식, 아이들을 위한 피규어와 슬러시 등을 판매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도 적당하고, 집과의 거리도 적당하여 현재 9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평균 4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중인데 식비와 쇼핑비, 취미 활동을 위한 학원비로 거의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께 용돈이나 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죄송해졌습니다. 따라서 노동으로 얻는 소득으로 혼자 마음 편히 돈을 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족도는 그럭저럭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업무 강도가 복불복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너무 없으면 시간이 안 가기도 하고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쁠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5~6시간 이상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갈 때는 체력 소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강xx, 대학교 3학년>

고3 때 동네 유명 삼겹살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용돈 마련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히 노동을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도 했지만, 용돈을 받는 금액보다 추가적인 지출이 많아서 노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하며, 강의실 관리 및 자재 수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끔씩 쿠팡 일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 모두 10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근로 장학생과 쿠팡 상하차 아르바이트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은 매달 다른 것 같습니다. 근로 장학생만 할 경우에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쿠팡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함께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쇼핑비로 제일 많이 사용하며, 가끔은 식비가 가장 큰 지출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겹살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는 손님에서 무시당할 때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하다 보면 학업에 부담이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잡힌 보강이나, 기존 강의, 팀플 시 양해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쿠팡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고정적인 것이 아닌 제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 III 노동과 타 지표들과 관련성

## 1. 학업과 노동의 관련성

이번에는 학업과 노동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는 학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Case 1>

학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 학업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면 노동을 그만두게 됨
- 시험 날짜와 노동 날짜가 겹치게 되면 양해를 구하기 눈치 보임
- 좀 수업이 있을 때는 노동을 하지 않음
- 노동을 위해 수업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게 됨
- 교재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무조건 노동을 해야 함
- 개인 과외 스케줄을 노동에 맞춰서 조율함
- 노동 중인데 학교에서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 근무 스케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줌

<Case 2>

노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 노동을 하고 오면 피곤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됨
- 학업보다 노동이 우선이 됨

- 시험 기간에 시험 점수를 포기하고 돈을 벌러 감
- 노동으로 인해 과제나 학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함
-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학교에 갈 때 힘들
- 시험공부하기에 일정이 촉박함
-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를 미리 하게 됨
- 급한 과제가 생겼을 때 노동 중이면 과제를 내지 못하게 됨
- 노동으로 인해 쌓인 피로로 스트레스를 받음
- 과제를 해야 하지만 집에 오면 새벽 시간이 되어버림
-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에 눈치 보임
-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됨

이처럼 학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으로 인해 노동에 큰 영향을 주고, 노동으로 인해 학업에 큰 영향을 준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업과 노동에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일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발생 후 학업과 노동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대학 수업은 전국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로 인해 기존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기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난 만큼 여가 생활을 위한 비용 또한 많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도 대학생들이 노동에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많이 참여하게 된 만큼 노동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는 학업 때문에 노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 코로나19와 노동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2. 코로나19와 노동의 관련성

학업과 노동의 관련성을 조사하며 공통적으로 나온 응답은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근로 환경 모두 바뀌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학업과 노동의 관련성에서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Case 2> 노동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중에서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를 미리 하게 됨>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물론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응답도 많이 나왔다. 노동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가 노동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 있나요?”라는 질문의 응답을 종합해 보았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연구자 본인은 부정적인 영향이 눈에 띄게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해당 조사 결과를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후에 각 사례별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Case 1>

#### 코로나19가 노동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 여가 시간이 늘어나서 노동을 통해 용돈벌이를 하는 동기가 됨
- 일일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곳이 많아져서 편리함
-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됨
- 손님이 전보다 적게 와서 업무 강도가 낮아짐
- 업무 형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됨
- 거리 두기로 손님이 적게 와서 좋음
- 노동 시간이 줄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Case 2>

코로나19가 노동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

- 손님 수가 줄어서 자연스럽게 해고됨
- 사업자도 상황이 어려워지며 최저시급도 못 받게 됨
- 근로 일수와 시간이 줄어들음
- 당일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음
- 확진자가 다녀가서 가게 장사가 안 됨
- 명부 작성, 온도 체크 등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짐
- 배달 가게에서 근로하는 경우 더욱 바빠짐
-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

위 <Case1>과 <Case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정책제언 시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부각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일수와 시간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혔다. 근로 일수와 시간은 급여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든 것이 가장 부담이 컸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기존 근무지의 근로 일수 및 시간 변동으로 인해 주수입이 줄게 된 인터뷰이들이 많았다. 따라서 투잡과 같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것이 일일 단기 아르바이트이다. 일일 단기 아르바이트는 물류창고 혹은 택배회사에서 많이 모집한다고 한다.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 파킹 아르바이트, 상하차 아르바이트, 포장 아르바이트 등 배치되는 구역에 따라서 매일 업무가 새롭게 분장된다고 하였다.

<박xx,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자취를 하고 있어서 생활비 마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래 하던 카페 아르바이트를 잘리게 되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시간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한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및 졸업 작품 제작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생활비 마련까지 걱정하다 보니 막막했습니다.

<이xx, 대학교 1학년>

학과 특성상 실습과목은 어쩔 수 없이 대면 수업으로 응해야 합니다. 대면 수업이 애매하게 끼어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이 사라지게 되었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데,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하고 식비, 쇼핑비, 유흥비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건 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니 사용할 수 있는 돈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 3. 진로와 노동의 관련성

노동을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만 하지는 않는다. 간접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혹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노동을 하는 곳은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일을 배우면서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처럼 노동은 향후 진로와도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진로는 가야 할 길이지만, 노동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한 인터뷰이가 말했다.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야 할 길은 앞으로의 내 방향을 고민하고, 생각한 후에 길게 보며 갈 길이라는 점에서 노동과 다른 것 같다. 반면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 그렇다면 노동 경험이 진로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 응답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동 경험이 진로에 주는 영향>

- 그 직업 혹은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됨
- 노동 경험을 진로 선택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
- 한 분야의 노동만 하다 보면 타 분야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음
- 자신의 노동 경험을 기반으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음
- 학업의 성과는 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음
- 단순한 아르바이트 노동이 실제 취업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인맥이 넓어짐
-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됨

<최xx, 대학생 3학년>

노동하는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사장님께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손님께 배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하는 공간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쌓는 곳’ 혹은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일의 능률 또한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장님의 추천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노동을 했던 경험과 노동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해본 것보다는 해본 것이 백 번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 경험은 있어서 안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닌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생각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노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조립 혹은 생산직 아르바이트

라면 정말 육체적인 노동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저는 현재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으며,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최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주를 받아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를 하면 급여가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닌 제 커리어를 쌓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사회로 나가기 전 많은 사람들을 미리 만나 볼 수 있으며 인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왕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어떤 노동이 도움 될 것 같은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전공과 적성을 살린 노동을 한다면 그 노동은 단순히 금전적인 동기뿐만 아닌 자기성장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은데, 다들 꼭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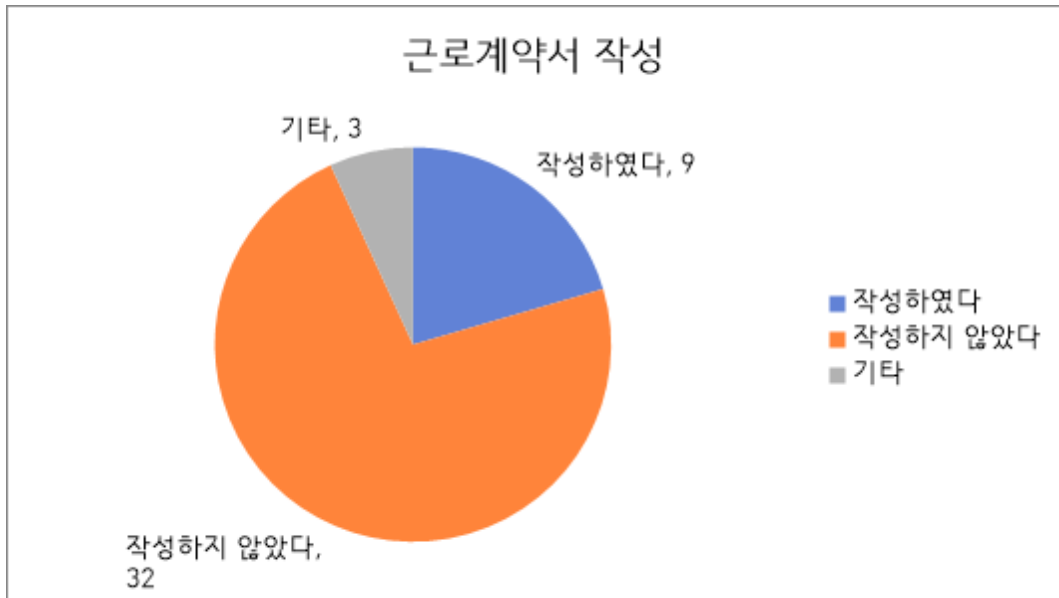
### 1.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현실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현황부터 소득, 만족도까지 모두 알아보았다. 학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많은 인터뷰이들은 “노동 중인 대학생”을 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열악한 환경 속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열악한 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코로나19가 학업에 준 영향은 노동에 주는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고, 노동이 주는 영향은 또 학업에 주는 영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학업 수행은 진로와 직결되며, 노동 또한 진로와 관련성이 크다. 이처럼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모든 노동, 학업,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간 연쇄적인 성향을 높게 띄고 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이 의무화되어있다. 하지만 노동을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인터뷰이는 단 7명뿐이었다. 심지어 7명 중 5명이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당연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들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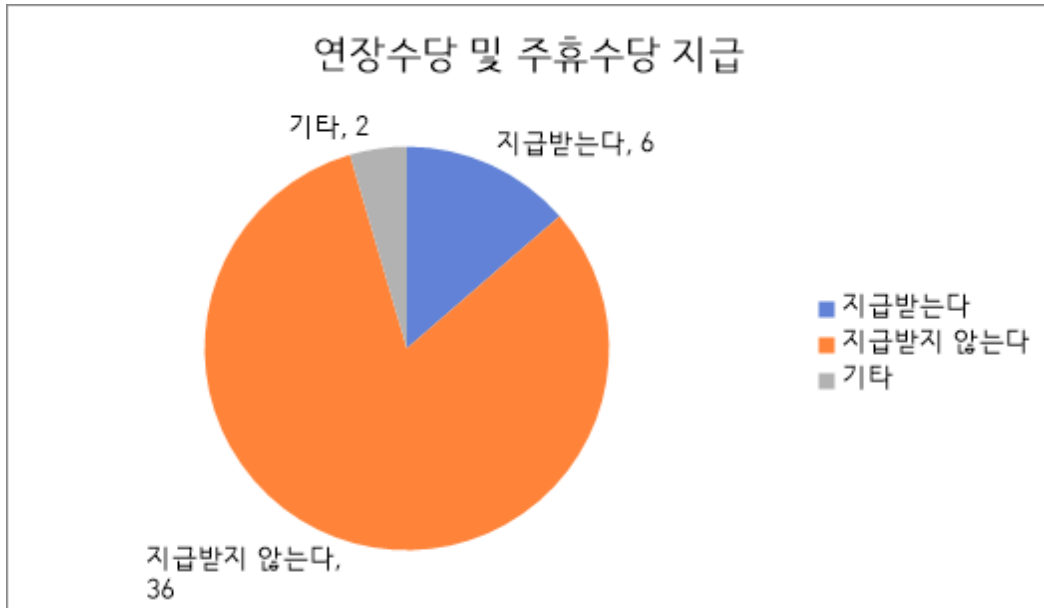
연구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인터뷰 대상자 50명에게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연장,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법적으로 작성이 의무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중 기타 의견 응답자는 3명이 있었는데, <요청했더니 작성하였다>,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니 작성해 줬다>, <시청에서 검사하러 나오니까 급하게 작성하라고 했다>와 같은 응답을 남겼다.

또한, 근로자들 본인도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 인터뷰이는 “돈만 제때 들어오면 돼요. 근로계약서는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답한 것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교육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은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유급 주휴일을 받지 못하는 인터뷰이가 무려 36명이었다.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6명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근무하는 인터뷰이였다. 기타 응답자 2명은 각각 <퇴사 후 법적인 근거를 대며 요구하자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받았다>라고 응답하였다.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이 받아야 하는 부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 2. 대학생 청년들의 노동 애로사항

노동에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들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본 조사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은 본인 스스로의 역량 부족, 스트레스, 피로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어려움은 이를 제외한 모든 어려움을 말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 혹은 외부로부터 받게 된 어려움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Case 1>

개인적인 어려움

- 감정노동을 해야 할 때
- 피곤할 때
- 하루 근무시간이 길 때
- 오랫동안 서있어야 할 때
- 급한 가정사가 생겼을 때
-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때

<Case 2>

사회적인 어려움

- 진상 손님을 마주했을 때
- 함께 일하는 직원 혹은 사장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 사장님께서 휴식시간을 안 주실 때
- 매장이 넓을 때
- 급여를 제때 못 받을 때
- 노동 중 생각해 보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혹은 근무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으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노동 환경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1. 노동 중인 대학생에 위한 실질적인 지원

-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 중인 대학생에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명목적인 것만을 좇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노동자들을 들여다보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의 대상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 2. 노동 관련 교육 의무화

- 노동을 하는 당사자조차 노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및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이 각 개인에게 할당된 수당 및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사업자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기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 3. 산학협력 근무지 활성화

-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생 청년들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다. 또한, 일을 할 때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혹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근로 장학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기관 혹은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 산학협력 기관 혹은 기업에 학교 학생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산학협력 기관 및 기업 채용인원 할당제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산업체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유망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고, 학교는 산학협력 기관에서 재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학생에게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안선영,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16쪽

오선정,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2018, 47~56쪽

